

중국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기업별 외채한도 사례 분석

(17. 7. 12)

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

I. 우량 기업의 외채한도 사례

□ A기업의 사례

A기업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'04.3월에 설립되었다. '16.12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되어 있는 총 투자액은 U\$1억이고, 주책(注册, 등록)자본금(동 기업은 업력 10년의 기업으로 등록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이 동일)은 U\$48백만이다.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\$5백만(대출기간 1년), 시설자금 U\$5백만(대출기간 3년)을 차입 중에 있으며, 작년에 산업은행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자금 U\$10백만(대출기간 3년) 중장기 대출은 상환하였다. 또한 국민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운영자금 U\$2백만(대출기간 1년),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U\$1백만을 사용 중에 있다.

한편 동 기업의 '16년말 기준 순자산(=자기자본)은 U\$82백만이다. 구체적으로 설립 이후 지속적인 흑자영업을 지속하여 매출액이 U\$3억, 영업이익 U\$6백만, 당기순이익 U\$5백만을 기록하였다. 특히 매출액은 원화 기준 약 3,200억 원으로 분사 매출(6,000억 원)의 53%에 달한다.

□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

○ '투주차' 방식 : 외채한도 U\$32백만

- 투자총액 U\$1억 - 등록자본금 U\$48백만 - (단기외채 잔액 U\$5백만+중장기 외채 발생액 U\$15백만) = U\$32백만

☞ 상세 계산방법은 붙임 참조

- 투주차 방식에서 국민은행 중국법인 및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U\$3백만은 경내차입이므로 외채한도에 포함하지 않음.

○ '순자산 X 2배' 방식 : 관리 잔액 U\$17.5백만 < 외채한도 U\$1.64억

- 순자산(=자기자본) : U\$82백만

- 해외차입관리 잔액 : $\{(U\$5\text{백만} \times \text{기간환산인수 } 1.5 \times \text{일반거래인수 } 1) + (U\$5\text{백만} \times \text{기간환산인수 } 1 \times \text{일반거래인수 } 1) + (U\$10\text{백만}(\text{운영 } 5\text{백만} + \text{시설 } 5\text{백만}) \times 0.5)\} = U\17.5백만

⇒ 순자산 방식은 잔액 기준을 적용(붙임 참조)하므로, 작년에 상환한 중장기외채 U\$10백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.

- 해외차입 한도(잔액 상한액=최대 외채한도) : 순자산 U\$82백만 X 2배 = U\$1.64억

□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

○ '투주차' 방식에 따라 외채한도는 U\$32백만의 여유가 있음. '순자산x2배' 적용 시 최대 외채한도가 U\$1.64억이고, 이중 관리 잔액이 U\$17.5백만으로 여유 한도가 약 U\$1.46억에 달함.

⇒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 공식(붙임 참조)에 따라, 해외차입관리 잔액은 해외차입 한도(최대 외채한도)보다 적거나 동일해야 함.

○ 이에 동 기업은 '17.5월~'18.5월 중 '투주차' 또는 '순자산x2배' 방식 중 '순자산x2배'를 선택하는 것이 외채한도 운용에 유리함.

○ 더욱이 중국 정부가 '18.5월 이후 순자산 방식으로 외채관리 제도를 전환하게 되면, 외채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외채차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II. 비우량 기업(적자 및 자본잠식)의 외채한도 사례

□ B기업의 사례

B기업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'08.8월에 설립되었다. '16.12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되어 있는 총 투자액은 U\$80백만이고, 주책(注册, 등록) 자본금(동 기업은 업력 13년의 기업으로 등록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이 동일) U\$42백만이다.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\$5백만(대출기간 1년)을 차입 중에 있으며, 작년에 시설자금 U\$5백만(대출기간 3년) 중장기 대출을 상환하였다. 또한 하나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기 운영자금 U\$8백만(대출기간 1.6년)을 사용 중에 있다.

한편 동 기업의 '16년말 기준 순자산(=자기자본)은 U\$2백만이다. 이는 '16년 중순순실 U\$7백만 시현과 함께, 미배당이익(로얄티, 기술료 등 지급) U\$33백만 집행으로 자본조정 U\$40백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.

□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

○ '투주차' 방식 : 외채한도 U\$28백만

- 투자총액 U\$80백만 - 등록자본금 U\$42백만 - (단기외채 잔액 U\$5백만+ 중장기외채 발생액 U\$5백만) = U\$28백만
- 투주차 방식에서 하나은행 중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U\$8백만은 경내차입이므로 외채한도에 포함하지 않음.

○ '순자산 X 2배' 방식 : 관리 잔액 U\$10백만 > 외채한도 U\$4백만

- 순자산 : 납입자본금 U\$42백만 - 자본조정 U\$40백만 = U\$2백만
- 해외차입관리 잔액 : $\{(U\$5백만 \times \text{기간환산인수 } 1.5 \times \text{일반거래인수 } 1) + (U\$5백만 \times 0.5)\} = U\$10백만$

⇒ 순자산 방식은 잔액 기준을 적용(붙임 참조)하므로, 작년에 상환한 중장기외채 U\$5백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

- 해외차입 한도 : 순자산 U\$2백만 X 2배 = U\$4백만

□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

- '투주차' 방식에 따라 외채한도는 U\$28백만의 여유가 있으나, '순자산x2배' 방식 적용 시 최대 외채한도가 U\$4백만인데 관리 잔액이 U\$10백만으로 U\$6백만 한도 초과 상태임.
 - ⇒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 공식(붙임 참조)에 따르면, 해외차입관리 잔액은 해외차입 한도를 넘을 수 없음(즉 적거나 동일해야 함).
- 이에 동 기업은 '17.5월~'18.5월 중 '투주차'를 선택하여 외채한도를 운용해야 함. 그러나 중국 정부가 '18.5월 이후 '순자산x2배' 방식으로 외채관리 제도를 전환할 시, ① 사용 중인 외채 중 초과분(U\$6백만)을 상환하거나, ② 계속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해야 함.

III. 신설 기업의 외채한도 사례

□ C기업의 사례

C기업은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'17.4월에 설립되었다. '17.6월 기준 중국 상무국에 최종 신고한 총 투자액은 U\$60백만이고, 주책(注册, 등록)자본금은 U\$20백만, 실제 납입자본금은 U\$2백만이다.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운영자금 U\$5백만(대출기간 1년)을 차입할 계획이며, 타 은행권 차입 계획은 없는 상태다. 한편 동 기업의 순자산(=자기자본)은 U\$2백만이다.

☞ 신설 법인은 반드시 납입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비율을 체크해야 함(붙임 참조).

□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

○ '투주차' 방식 : 외채한도 U\$4백만

- (투자총액 U\$60백만 - 등록자본금 U\$20백만) X (납입자본금 U\$2백만/등록자본금 U\$20백만) = U\$4백만

○ '순자산 X 2배' 방식 : 관리 잔액 없음 < 외채한도 U\$4백만

- 순자산 : 납입자본금 U\$2백만
- 해외차입관리 잔액 : 해당사항 없음(신설 법인으로 무차입 상태임).
- 해외차입 한도 : 순자산 U\$2백만 X 2배 = U\$4백만

□ 평가 및 대응방안 제안

-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가 U\$4백만으로 동일함. 그러나 동 기업은 현재 당행으로부터 운영자금 U\$5백만을 차입하고자 하므로 한도가 U\$1백만이 부족한 상태임.
- 이에 동 기업은 '17.5월~18.5월 중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중 택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. 이보다는 당행 운영자금 차입을 위해 최소 U\$50만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, 대출금을 U\$1백만 축소해야 함.
- 더욱이 신설 법인은 경영정상화(흑자영업 시현 의미)까지 일반적으로 3~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, '18.5월 이후 '순자산x2배'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본금을 추가 납입해야 함.

III. 시사점

□ 우리기업, 자체 외채한도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

- 우리기업은 '투주차' 및 '순자산x2배' 방식에 따른 외채한도를 직접 계산하여 해당 외환당국에 사전 확인한 후,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특히 비우량 기업의 경우 '18.5월 이후 '순자산x2배' 방식 전환 시, 외채한도가 크게 축소되므로,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□ 당행, 제도변경 적극 안내 및 외채한도 사전 점검 필요

- 당행 여신부점은 현사자금 대출기업(신규 및 기존 거래기업)에 대해 외채 관리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.
- 아울러 '18.5월 이후 '순자산x2배' 방식의 외채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, 신규 및 재대출 전 거래기업의 외채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.

문의 :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
(연락처 : 070-7525-0857)

붙임

'투주차' 및 '순자산 x 2배' 외채한도 계산방식

◆ 투주차 해외차입 한도 = 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 - 외채차입액*

* 외채차입액 = 단기외채 잔액 + 중장기외채 발생액

⇒ 단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함. 즉, 한도 = (투자총액 - 등록자본금) x (납입자본금/등록자본금)

-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'외채등기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'(13년) 등에 의거, 투자허가증 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(이하 '투주차'(投注差)) 범위 내에서 해외 차입이 가능

- 차입한도는 단기외채는 '잔액'을, 중장기외채(차입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)는 '발생액'을 기준으로 산정

⇒ 기존 중장기 외채의 기한연장, 신규중장기 외채 차입 후 기존 중장기 외채와 단기외채 상환 시, 해당기업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 인민페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외채한도를 공제하지 않음.

◆ 순자산 해외차입 한도(잔액상한액) = 순자산 x 2배

외채위험가중치 잔액 : 해외차입관리 잔액	외채위험가중치 잔액상한액 : 해외차입 한도
$\sum \text{외채차입금(위안화, 외화)} \times \text{①기간환산인수} \times \text{②대출종류별 환산인수} + \sum \text{외채차입금(외화)} \times \text{③환율환산인수}$	\leq ①최근 1년 이내의 순자산 x 2배 (해외차입 레버리지 비율을 의미)

⇒ 해외차입관리 잔액이 해외차입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(적거나 동일).

※ 부문별 환산 적용 인수 : 아래표 참조

구분	적용 조건	인수
① 기간	단기(상환기간 1년 이내)	1.5
	중장기(상환기간 1년 초과)	1.0
② 대출종류	일반거래	1.0
	부외거래(우발채무)	1.0
③ 환율	외화 용자	0.5

주: 중국인민은행이 거시경제,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수 조정 및 발표
자료: 中國人民銀行